★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 아이들의 궁전



조 선

주체111 (2022) 9

(795)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체 육

자 연

표 지: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린다.

뒤표지: 금강산의 비봉폭포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특별소식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8월 10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 방역, 보건부문의 일군들, 국경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군부대 지휘성원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비상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국방성 비상방역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력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개괄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시였으며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엄청난 보건위기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과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주요공업부문에서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며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고 호소하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는 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한 초시기부터 사실상의 방역총사령부로서 방역전쟁을 철두철미 인민보위, 인민사수의 성전으로 전환시키고 나라의 인적, 물적, 과학기술력량을 방역사업에 총지향시켜 대승에로 령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방역대전의 경이적인 성과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향도력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사상초유의 방역위기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신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방역정책방향과 과업들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1(2022)년 8월 10일



전국의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

국경과 전연, 해안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군부대 지휘관동무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비상방역사단, 련대, 대대의 지휘성원동무들!

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였습니다.

공화국령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는것에 저항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전당, 전국, 전민은 강의한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으로써 엄혹한 전염병위기를 타개하고 방역형세를 안정회복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열자수가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서 치명률에 있어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될 매우 낮은 수치가 기록되였습니다.

전국적인 감염자발생수는 어제까지 련 12일간 령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완쾌자가 보고된 때로부터도 7일이 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 령토를 최단기간내에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였습니다.

국내에서 악성전염병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것도 방역위기종식을 확신할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됩니다.

우선 마지막감염자들이 모두 완쾌되고 핵산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명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였으며 전사회적으로 방역규정준수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소독사업이 더욱 강화되여 악성비루스가 전파될수 있는 각이한 경로들이 차단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류입된 경로를 과학적으로 최종확증한데 따라 이에 대한 차단과 봉쇄,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오물들을 발견하는 즉시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는 질서와 수입물자들에 대한 방역학적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이 심화되여 외부로부터 그 어떤 변이비루스도 류입되지 못하게 한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악성전염병확진자가 모두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 2》에 의한 감염자로 판명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변이형이나 아형도 발생하거나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제반 사실로 보아 우리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사태가 종식되였음을 충분히 확신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전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세계공공분야의 최고의 위협사태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소거해버린것은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불굴의 신념과 강의한 인내, 진정한 단결로써 안위존망의 사태에서 자기자신과 모두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내고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지들!

기쁨과 긍지가 한없이 차넘치는 시각이지만 왜서인지 이 자리에 서고보니 여기에 오기까지 그리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형언할수 없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다시금 되새겨집니다.

지나온 91일간은 우리의 투쟁령역에서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 맞잡이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련속이였으며 말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딴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매우 다급한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였습니다.

방역기반과 보건토대가 취약하고 방역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국가의 안전과 수천만 인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횡포한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분1초가 다급한 시간쟁취전에서 이에 대한 반응력조차 없었던 국가기관들을 기민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들자면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의 국면을 역전시키자면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하는 이 무거운 력사적과제는 우리 당의 령도력을 다시한번 랭혹하게 검증하는 시금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맞다든 이러한 국난앞에서도 우리 당은 자기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본연의 자세와 립장에 충실하였으며 자기 특유의 결단성있고 강력한 정치적지도력을 정확히 발휘하면서 국가의 방역기강을 다졌으며 비루스박멸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였습니다.

동지들!

당과 인민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굳건한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 엄연한 현실은 우리의 정책이 옳았고 우리의 투쟁방침이 정확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확언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원칙입니다.

악성전염병이 경내에 류입된 즉시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것과 함께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매우 적시적이고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전인민적인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 의식적분발이 없이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입니다.

결코 쉽게는 쟁취할수 없었던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일치단결로써 받들어준 우리 인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제일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각방으로 겹겹이 구축해놓은 방역장벽에 빈틈이 생겨 일단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 확산된 긴급형세에서 급선무로 나선것은 전염병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폐조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전주민집중검병검진을 엄격히 진행하여 유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켜 치료하는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일부분이나 몇개 지역이 아니라 전반령역에서 모든 래왕과 이동이 금지되고 정상적인 사업과 활동의 률동이 파괴되여 국가사업뿐 아니라 매 가정, 매 공민들의 생활에서 이전보다 난관과 애로가 몇배로 가중된다는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를 우리 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응당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면서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하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민들이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사를 뒤로 미루는것을 흔연히 여기였으며 사소한 동요나 나약성, 비관과 공포도 없이 방역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특유의 강인성을 더욱 뚜렷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인민들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악성병마의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과 정부는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함으로써 모든 유열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이 가닿을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인 치료전술과 방법을 확립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는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지 5일째부터는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적인 국면에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틀어쥘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고 국가사업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역정책과 지침을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을 돌이켜보면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고 국가적으로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게 세운것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엄격성에 과학성을 결합하고 주민생활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운것이 악성비루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대승을 앞당기는데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일치성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방역정책과 지침을 철저한 집행과 완벽한 결과에로 이어지게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심에 있어서나 나라사정에 대한 리해심에 있어서 그리고 공민적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곤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왁찐접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던 전염병확산사태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든것은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식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집행함에 일치하게 호응해나선 전민합세의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는 또한 우리 사회주의 제도특유의 우월성과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여있기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국, 전민이 일시에 떨쳐일어나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국가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는것이야말로 우리 사회특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적우월성입니다.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여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정신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전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제도는 남들이 가질수 없는 불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제도적바탕이 있기에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결정이 시달된 즉시 전국을 시, 군별로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하는 조치가 철저히 실행되였으며 보다 강도높은 방역규률과 질서, 기강이 확립되여 금후 방역전에서 전략적주도권을 쥘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총발동되여 외따로 떨어진 초소와 가정들에까지 약품을 보장하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봉쇄기간 각종 이동봉사대를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최대한 덜어준것도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였습니다.

비록 우리 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미약하지만 이미 확립된 우리 식의 의료봉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방대한 방역과제, 치료과제가 성과적으로 달성될수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와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의료봉사체계와 같은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에 토대하여 유열자장악과 전주민검병검진사업이 매일 진행되고 격리 및 치료가 정확히 실시된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방역형세의 안정화를 획득하고 감염근원을 없애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방역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데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공적을 세운것은 방역부문과 보건부문의 일군들입니다.

설사 본연의 임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일선참호에 서있는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의 부담과 고생이 제일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보건전사들은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대고 누구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며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무한한 희생정신,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이 우리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이 자기를 지탱하고 악성병마와의 싸움에 헌신분투할수 있게 한 정신적힘이였습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세대들과 인원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유열자들을 찾아내여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보건일군 7만 1, 200여명, 위생열성일군 114만 8, 000여명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보건부문 경력자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들모두가 이러한 정신으로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수도에 파견된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당의 신임과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보답하려는 충성의 열정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도의 약품공급이 안정되고 전염병형세가 역전되였을뿐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이 보위되였습니다.

나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중앙의 명령을 훌륭히 관철한데 대해서와 수도시민들이 우리 군대를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친혈육으로 진실하게 간주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번 보건위기속에서 감염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특별히 적은것은 우리 방역, 보건일군들이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전국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평소의 몇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속에서도 매일 24시간 방역초소와 치료초소를 떠나지 않고 심신을 깡그리 바치였습니다.

당과 인민에게 충직한 우리의 보건전사들속에는 앓고있는 자기 자식과 남편을 돌보기에 앞서 맡은 주민세대들과 환자들에게 정성을 쏟아부은 의사, 간호원들, 자체로 부족되는 의약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준비하여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의료일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욱 감동을 금할수 없는것은 자기의 병세를 잘 알면서도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고 방역전의 승리와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생의 마지막기력까지 다 바친 방역, 보건일군들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군의들과 간호원들,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천리마시대 붉은 보건전사들과 다름바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최대비상방역기간뿐 아니라 비상방역전이 시작된 초시기부터 전연과 국경, 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방역초소들을 억척으로 지키고있는 전투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하여서도 항상 생각하고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특명을 받고 비상방역전의 전초선들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차단근무에 동원된 수많은 군인들과 안전, 보위일군들, 로농적위군 대원들, 각지 방역초소 성원들이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지켜섰다는 책임감,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폭염과 폭우속에서도 온갖 애로를 인내하며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다지고 전사회적인 방역규률준수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기간에 보건부문 일군들과 방역전초선의 전투원들속에서 발휘된 희생정신은 우리당 투쟁사와 조국청사에 당당히 기록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최대비상방역기간 우리 인민들속에서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발휘된 공산주의적인 미덕, 미풍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였습니다.

온 나라가 악성병마의 위협에 직면한 준엄한 시각 당과 정부의 제일 큰 근심은 수천만 인민들의 건강과 함께 강도높은 봉쇄차단조치로 어차피 우리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충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신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로 보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집단주의와 인간애를 공기처럼 호흡하며 배양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는것은 흔히 보게 되는 미담이지만 이번 방역전에 수놓아진 감동깊은 사연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가슴뜨거운 미담들과 고결한 인간상에 대하여 일일이 다 렬거할수 없는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것만 말하더라도 악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철야전투를 벌린 공장종업원들과 일군들도 있고 가산을 아낌없이 덜어내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도 있으며 방조가 필요한 세대, 곤난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식량과 부식물,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지원자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또 그속에서는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나어린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곤난한 형편에서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더우기 자기는 배를 곯으면서도 성의를 다 바치는 이런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써는 진가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목과 인간적뉴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당중앙과 뜻과 정을 같이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힘을 얻었으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곡경도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였습니다.

온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여있는 이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이고 위력이며 바로 이로 하여 이번과 같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엄청난 보건위기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방역장벽을 지켜 수고를 많이 한 모든 군인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방역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성원한 지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번에 비상방역전선에서뿐 아니라 경제전선과 국가사업전반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몇해째 지속된 방역상황에 덧씌워진 악성전염병사태는 국가사회생활과 경제건설에 막대한 장애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재난으로 되였지만 이 모든것을 완강히 극복하고 정상사업을 유지하면서 예견했던 발전속도를 드팀없이 보장한것 자체가 바로 커다란 승리로 되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하여 선포하면서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믿고 비상방역전과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할것을 결정하였는데 이 과업이 철저히 관철되였습니다.

올해 경제사업의 급선무로 내세운 농업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영농공정들이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되였습니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은 한해 농사에서 관건으로 되는 봄철에 시작된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장애로 되였으며 제일 바쁜 모내기철에 국가적인 로력지원도 예정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올해에 기어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려는 각오와 열의로 충만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열병도 이겨내고 방대한 모내기과제도 순수 자체의 힘으로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어려운 방역전투를 벌리고있는 인민들에게 희소식으로 되였습니다.

수도의 대규모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방역학적요구가 더 엄격해지고 수송과 자재보장이 순탄치 않은 조건에서도 계획된 공사일정을 줄기차게 추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부문에서도 로력보장, 자재보장이 여느때보다 곱절로 곤난하였지만 일별, 순별, 월별 생산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정체를 막고 올해 목표달성에로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것이 또한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당, 행정, 경제기관들, 사법검찰부문과 안전, 보위, 국방부문들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는데 맞게 비상시 사업체계를 신속히 수립하고 허점과 공간, 편향을 찾아 대책하면서 자기 사업을 신축성있게 효률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과 단위 일군들이 당과 정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지행동으로 체득하게 된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업에서는 결함과 교훈도 있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직면할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에 원만히 대처하는데서 소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찾은 교훈은 두가지로 함축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건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견지하여온 방역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이번 방역위기의 시발점으로 된 금강군 전연지대에서의 유열자발생도 그 지역내에서 얼마든지 차폐하고 억제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명으로 시작된 악성전염병이 방역부문에 내재된 방심과 해이의 공간을 타고 수도권에까지 침습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수천수만의 인력을 투하하여 전연과 국경, 해안에 치밀한 봉쇄망을 펴고 전인민적인 방역형세를 조성하였는데 설마 악성비루스가 들어올 틈이 있기나 하겠는가고 자만방심, 자체위안하면서 탕개를 풀어놓고있은 그 자체가 이번과 같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만도취, 안일해이, 설마병이 전염병의 초기류입상태를 판단할수 없게 눈을 흐려놓은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세에 서서 사소한 이상징후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시켜 고찰하면서 순발적인 대응력을 발휘하고 불의의 사태앞에서 침착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자신감있게 전개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전국에로의 전염병확산을 피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이번 방역전쟁을 치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을 떠나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사업태도와 일본새에 계속 매달린다면 앞으로 도래할수 있는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보건위기앞에 언제든지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초기에 누구나 느낀것이지만 악성비루스의 검사와 진단, 과학적인 치료전술을 제때에 정확히 확립실행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능히 막을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내고 내부에서의 전염병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미신적인 랑설까지 나돌아 방역과 치료사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역의 모든 고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근원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 예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책하지 못하고 물리적봉쇄일변도에만 매달려 기계적으로 사업하다보니 인민들의 생활상불편과 경제사업의 부진을 가중시키고 앞질러가며 할수 있는 일도 뒤따라가면서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보건, 방역의 실태, 깊이 말하면 우리의 보건, 방역하부구조와 기술력, 물질적준비상태가 건국이래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보건, 방역정책에 상응하게 발전하지도 못하였고 불의의 사변앞에 민활하게 대응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다 체험했듯이 일단 유열자가 도처에서 발생할 때 방역부문, 보건부문의 필수대응능력이 얼마나 긴요하고 절실한가를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결국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항상 중시하고 예측해야 할 객관적인 위기는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전쟁위기, 전염병위기, 자연재해, 이것이 국가존립과 발전,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적으로 대처해야 할 3대위기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오래전부터 강력히 선차적힘을 넣고있으며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원력, 잠재력도 각성있게 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능력건설입니다.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는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우리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한 주요정책적과업들이 이미 다 책정되고 시달되였으므로 큰선에서만 몇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하여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국가비상방역사업이 다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중보도수단을 통하여 매일 소개되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과 우리 나라 주변의 전염병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이릅니다.

우리 경내에 들어왔던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10여종의 아형들이 세계각지에 련이어 출현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판국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높은 원숭이천연두비루스가 수십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전염병발생가능성도 인류를 불안케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에 도취되여 자만하거나 해이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이 계속 강화되여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성과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방역전의 주인이 광범한 대중이고 방역전의 승패도 사람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이미 확립되여있는 전사회적인 방역분위기가 절대로 약화되거나 저조해지지 않게 방역선전과 교양을 각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불피코 해이와 방심, 무경각이 살아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행정경제부문, 법기관들은 전부 각성하여 대중적인 방역의식과 위기의식을 견지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도높은 방역선전과 해설사업도 판에 박은 소리를 반복하면 오히려 권태감과 만성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자료들과 우리 방역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실지 대중속에 방역의식을 공고히 하고 방역준수기풍을 심화시킬수 있는 선전전, 사상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역지침과 규률을 어기는 현상과의 조직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우리의 방역투쟁이 대중의 자각성에 강력한 법적담보가 안받침된 확실하고 믿음성있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장벽을 유지공고화하는데 계속 주력하여 그 어떤 악성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대류행병의 변동특성에 따라 보강할것은 보강하고 새로 차단할것은 차단하면서 봉쇄의 완벽성을 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봉쇄차단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 고무격려와 함께 근무조건 및 생활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우리의 방역전초선이 사상정신적으로나 작전전술적으로, 방역학적으로 완벽할뿐 아니라 책임성과 경각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의 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공중보건비상사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도전적인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건악몽이 재현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며 안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방역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 방역능력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늦추는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로 보아도 그렇고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제도의 본성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이번 보건위기가 새겨준 뼈저린 교훈을 놓고보아도 방역능력건설을 강행추진하여 반드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실시한 방역정책과 지침들,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체계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방역을 보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완벽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방역체계와 질서를 보다 완비하며 방역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있게, 현실성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힘을 넣어야 할 과제는 전문방역일군들을 양성하고 수준을 높여주는 사업, 과학적인 검사측정설비들을 개발장비하는 사업, 전문격리치료시설들을 나라의 곳곳에 꾸리는 사업을 늦추지 말고 계획성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이미 제시한대로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들,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의료용소모품공장, 방역의료품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전국의 병원들을 현대화하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로 실속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 방역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건강장수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방역부문, 보건부문앞에 나선 중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인민들은 최대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목격하면서 의료일군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간주하게 되였습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이 믿음, 이 평가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 소중한 재부로 간직해야 하며 이에 계속 보답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이 준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체질화하고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시련속에서 또 한번 강해졌으며 이제 더 많은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과감히 이겨내고 더더욱 강해질것입니다.

바로 석달전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전파되였다는 사실이 공표되였을 때 오늘같은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떨쳐일어난 고마운 인민과 그 인민의 일심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보건위기도 절망과 좌절의 고비가 아니라 발전도약의 기회로 삼고 더 큰 승리를 내다보며 전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우리 인민의 믿음과 고무격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뚜렷이 과시된 우리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비상방역전선에서만이 아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상최악의 위기를 과감히 이겨낸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하고 승화시킨다면 올해 우리가 내세운 투쟁목표는 물론이고 당 제8차대회가 밝힌 5개년계획의 목표도 성공적으로 점령될것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열화의 사랑을 안으시고 선견지명한 통찰력과 강인담대한 의지, 비상한 결단과 탁월한 령도로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서 위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억척으로 지켜주신 **김정은**동지를 격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며 전인민적인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온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는 우리 국가의 위대함, 우리 인민의 불굴의 강인성, 우리가 자부하는 아름다운 국풍이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혈연의 정으로 일치단결된 힘이야말로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혁명자산이며 그 어떤 미증유의 격난도 뚫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보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최대비상방역전의 값비싼 승리를 새로운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승화시켜 국가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8일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수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하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별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집결된 4. 25문화회관은 악성 비루스를 박멸하기 위한 치렬한 전쟁을 치르며 희생까지도 각오하던 그 나날 꿈결에도 그리며 단 한번만이라도 뵈옵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김정은**동지를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전투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응당한 본분을 다한 전사들의 마땅한 노력과 투쟁을 조선인민군의 전투적로정에 특기할 영웅적위훈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도 그 무엇이 부족하신듯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세계가 다 지켜보도록 또다시 내세워주시고 다시금 축하해주시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총비서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장내는 격동의 바다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하는데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국가방역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중심전투지역인 수도방역전장에서 굴함없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분투, 활약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견인불발의 정신과 백전백승의 전투력, 당군의 고귀한 풍모와 아름다운 절개를 과시한 전투원들에게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방역전투에서 발휘된 전투원들의 용감성과 희생성은 자기 사령관의 마음속진정을 제일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길에서 주저함을 모르는 우리 군인들의 남다른 충심에서 분출된 정신적특질이라는데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 이것이 91일간의 성스러운 전투행정에 평양시민들의 뇌리에 찍혀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참모습이였다고 하시면서 결사적인 투쟁으로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선을 헤치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면모를 과시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굳건히 보위한 전투원들의 혁혁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군대라는 신성하고 영광





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떳떳한 미더운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열정적인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평범한 전투원들을 오늘의 화선군의, 전투영웅들로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베푸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쏟고쏟으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방역투쟁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전투원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정을 안고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성심을 다 바침으로써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전사회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전투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18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함께 4. 25문화회관광장에서 조선로동당과 국가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미증유의 대동란속에서 운명적인 국난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령도로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승에로 향도하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활화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미덥고 끌끌한 화선군의, 전투영웅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선봉에서 평정하며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과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을 결사보위한 당중앙별동대원들의 혁혁한 공훈은 방역대전의 승전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필승의 령도가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심장에 더욱 깊이 새기고 수도방역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군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억척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방역투쟁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사수전으로 이어온 위대한 령도의 90여일

전대미문의 보건위기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아오던 우리 나라에 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한 그때로부터 90여일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앞에 조성된 방역위기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으시여 즉시적인 비상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상방역사업에서 철저히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국가비상방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

주체111(2022)년 5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하신데 이어 방역전에서 승세를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하여 전염병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 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이 어렵고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또다시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다시 소집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였다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실행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형세속에서 당면하게는 악성전염병전파방지와 치료전투에 집중하는것과 동시에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사업을 다방면적으로 적극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집행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개선하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악성비루스와의 방역전쟁이 개시된 지난 9일간의 방역사업실태를 개괄분석하신데 이어 전염병전파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열자, 확진자들에 대한 의료적대책을 개선해나가는 사업과 우리 당이 제시한 제반방역원칙과 조치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보건방선을 굳건히 지킬데 대한 중요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높이 전개하는것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당의 로선관철투쟁을 중단없이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지방별, 부문별로 료해장악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성원들로 조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주체111(2022)년 5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환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파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률적으로 신속히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주체111(2022)년 6월 8일-1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점들과 페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나라의 방역능력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주체111(2022)년 6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수도시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수도비상방역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린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 귀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수도비상방역전선에 긴급투입되였던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다.

인민군대가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주력으로 활약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지닌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수도의 악성비루스격퇴전에 전격진입한 때로부터 흘러온 90여일간은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승에로 향도하는 당중앙의 불면불휴의 령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온 충성의 하루하루, 값높은 위훈의 일각일초였다.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이 응축된 불사약들을 안고 악성병마에 시달리는 수도시민들을 찾아 거리와 마을들로 긴급히 전개하였던 화선군의들이 8월 14일 귀로에 올랐다.

평온과 안정을 되찾은 수도의 거리들에 고요가 깃들고 뭇별들만이 반짝이는 이른새벽 그들은 행장을 갖추고 시민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시안의 모든 약국초소들을 조용히 나섰다.

대오에 나직한 출발구령이 내리자 낮에 밤을 이은 긴장한 전투의 나날 그렇게도 강인했던 화선용사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방역대전의 순간순간을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투쟁으로 수놓은 그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해온 약국들의 종업원들도 오래도록 작별의 아쉬움에 젖어있었다.

우리 군대가 떠나간다는 소식을 어느새 전해듣고 시민들이 이른새벽 너도나도 떨쳐나왔다.











엄혹한 방역전쟁의 나날 수도의 평온과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단잠에 든 수도시민들을 깨울세라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 조용히 수도의 거리를 떠나갔다.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제압하고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미더운 자식들, 형제들을 너무도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움에 젖은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울리였다.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이 뜨겁게 분출되는 거리들에서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보내는 작별의 인사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수호자의 전투적 경례였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 신뢰와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보위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화려한 환송의식도 없이 수도의 거리를 떠나갔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박병훈





헤여지기 아쉬워 손을 놓지 못하는 인민들, 걸음걸음 따라서는 인민들에게 수호자의 인사를 보내는 화선군의들, 서로의 얼굴마다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불멸의 력사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세기적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여 이 땅우에는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고있다.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5월

오늘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발전사에 특기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이는 조선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세계가 우러르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에게 최고의 존엄과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대한 뜻이고 리상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이 자립, 자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로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부단히 확대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중요성, 그 비약적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9월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8(2019)년 10월

시였다.

주체105(2016)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자강력제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중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였으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완공한 강원도인민들을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며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그 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신 그이이시다.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8(2019)년 10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변의 신념과 정력적인 령도는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며 굴함없이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로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상이 나날이 꽃펴나는 자력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의 자주적발전을 방해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진 속에서도 온 나라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섰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여 후손만대의 행복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원쑤들의 침략위협이 존재하는한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불패의 국방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면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끊임없는 군현지시찰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적들의 침략책동도 단숨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시여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오시였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멀고 험한 화선길들을 앞장서 걸으시며 국가방위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 길에는 국방과학자들에게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못잊을 나날들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한 그들을 얼싸안아주시던 화폭들도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조선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려객운수수단들이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다.



조선의 북부지구에 대규모의 중평온실농장과 양묘장이 건설되였다.



전야에 펼쳐진 흐뭇한 작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아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문화정서기지들이 일떠서 어디서나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불과 1년사이에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송화거리의 일부

새겨져있다.

위대한 애국의 그 자욱을 따라 조선의 국력은 아득한 높이에로 솟구치고 이 나라 인민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승리들을 련이어 맞이하며 강국의 인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이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진정 탁월한 령도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고 혹독한 격난이 겹쳐드는속에서도 민족자존의 투철한 신념으로 인민의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이 땅우에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글 박의철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시의 일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공화국기

70여성상 창공높이 세차게 펄럭이는 람홍색공화국기는 강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 존엄과 기상,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행복의 상징이다.

공화국기는 날로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더욱 세차게 펄럭일것이다.





공화국기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불멸할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상징이다.

맑고 푸른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나붓긴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인 9월 9일이 다가올수록 조선인민모두가 더더욱 경건한 마음 안고 우러러보는 공화국기발이다.

장장 70여성상 무수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넘으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력사가 힘차게 펄럭이는 저 기폭속에 어려있다.

오각별 빛나는 저 기발을 높이 날리며 민주주의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섰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이다.

그 기발아래 뭉쳐 사대와 망국, 락후와 빈궁으로 황량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웠고 누구나 즐겁고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었다.

어찌 지나온 력사만이랴.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기는 정의롭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필승불패성의 상징이다.









오늘의 모습도 저 삼색기에 비껴있다.

그토록 어려운 조건에서도 각지에 훌륭한 새 거리, 새 마을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공화국의 품이다.

온 나라의 모든 학생들에게 철따라 새 교복을 입히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애쓰는 어버이의 다심한 정이 끝없이 흐르는 이 땅이다.





공화국기에는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고 받들어갈 강의하고 억센 인민의 의지가 비껴있다.









람홍색공화국기는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불멸할것이다

세계를 휩쓰는 대류행전염병이 조선에 류입되였던 건국이래의 대동란을 즉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물리치고 인민들의 생명을 굳건히 지켜낸 이 땅이다.

하기에 공화국기를 바라보는 이 나라 공민들 누구나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공화국기발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사는 조선인민이다.

이 땅의 공장과 전야, 학교와 마을 그 어디서나 공화국기를 사랑하며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세차게 펄럭이는 그 기발아래 자기의 정든 일터와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바로 그 기발과 더불어 보다 아름다운 희망과 미래가 담보되여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조선인민이다.

사진 리철진, 방은심
글 리진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하루에 5,000여명의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소조실이 근 150개나 있는 학생소년들의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부 지 면 적: 21만 4,000여m²
연건축면적: 10만 5,000여m²

아이들의 궁전

-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그들의 재능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며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고있다.

지난 8월 조선에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가 선포된 이후 평양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활기를 되찾았다.

광복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소년궁전에는 평양시 서부지구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운영되는 근 150개의 소조가 있다.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이곳을 찾아 취미와 소질에 따라 선택한 소조들에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다.

기초과학소조들에 망라된 소조원들의 실력은 전국적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기악, 성악, 미술 등 예능부문의 소조원들도 해마다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축전과 전람회들에서 자기들이 련마한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곳의 솜씨전람실에 전시된 국제적인 미술전시회 및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미술작품들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체육소조들의 소조원들중에서도 기계체조종목에서 3중세계선수권을 보유한 리세광과 같은 우수한 체육인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그만큼 이곳의 지도교원들의 자질과 경력도 결코 평범한것이 아니다.

소년궁전의 지도교원이 되려면 높은 실력과 함께 이곳에 설립된 6개월간의 사범교육체계를 꼭 통과하여야만 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예술소조원들은 지도교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높은 예술적기량을 펼쳐가고있다.













그리고 예능부문의 지도교원은 예술단체경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지도교원들의 실력평가방법도 시대와 함께 계속 변하고있다.

소조운영과과장 조혜영은 《1년에 두번씩 학부형들의 소조참관을 조직하고 지도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하였다.

주체104(2015)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후부터 소조활동에 망라되는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나고있으며 소조를 마친 학생들도 거의나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로 자라나고있다.

사진 안철룡, 방은심
글 강수정



천문지식보급실, 기초과학소조실, 전자기구소조실 등에서 학생소년들은 과학의 폭넓은 지식을 쌓아가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2,000석능력의 극장, 국제경기도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수영관과 함께 태권도소조실을 비롯한 여러 체육소조실들이 있다.











기쁨과 랑만이 넘치는 릉라도

-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아서 -

대동강의 구슬같은 맑은 물우에 비단필을 풀어놓은듯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예로부터 평양의 절경으로 자랑높은 릉라도에 수도의 이름난 문화정서생활기지인 릉라인민유원지가 자리잡고있다.

주체101(2012)년 7월에 문을 연 이곳에는 릉라물놀이장과 릉라유희장, 릉라곱등어관, 미니골프장 등이 있다.

유원지의 초입에 위치하고있는 릉라물놀이장이 시민들과 청소년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수조들에서의 물놀이와 덕수터에서의 시원한 덕수, 특색있게 꾸려진 롱구장과 배구장, 모래터배구장에서의 경기활동도 좋지만



즐겁고 유쾌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것은 물미끄럼대들을 타는것이다.

특히 근 20m의 높이에서 급한 경사를 따라 물갈기를 날리며 쏜살같이 내리지칠 때의 통쾌함을 누구나 잊지 못하고있다.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바쁘게 황홀한 불의 세계를 펼치는 릉라유희장에서도 다양한 유희오락시설들을 리용하며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떠날줄 모른다.

이곳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찾는 유희시설은 회전매이다.

순식간에 360°로 회전하여 눈앞이 아찔하게 만들기도 하고 용감성과 담력을 시험이나 하려는듯 중천에 한참동안이나 꺼꾸로 서있기도 하는 회전매, 이것을 탄 사람들은 물론 아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는 광경은 볼수록 웃음을 자아낸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것같은 아찔함에 다시는 탈것같지 않다가도 일단 타고나면 담이 몇배나 커진듯 다른 유희시설들에로 달려간다.

그 어느 유희시설이나 사람들에게 용맹과 담력,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주기에 남녀로소 누구나 오래도록 유희장구내를 떠날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들어가면서 절대로 웃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결심이 물거품으로 되고마는 웃음집이며 출로를 찾으려 애써도 한참이나 진땀을 빼게 하는 거울집, 시간가는줄 모르게 하는 전자오락관, 모험적인 바다려행도 해보고 하늘을 나는 우주세계에도 가보는 릉라립체률동영화관 등도 초만원을 이룬다.

악성전염병사태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바로잡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대동강반의 풍치와 어울려 더욱 정답게 안겨오는 릉라인민유원지이다.

사진 리철진, 리진혁
글 김선경



어디서나 넘쳐나는 웃음과 랑만







물갈기를 날리며 쏜살같이 내리지치는 물미끄럼대와 수조들에서의 물놀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해수욕장

마전해수욕장은 울창한 수림과 바다, 맑은 공기로 하여 조선에서 이름이 났다.

늦여름에 들어서면서 조선동해안의 손꼽히는 명승지인 함경남도 함흥시의 마전유원지가 매일같이 《해일》을 겪고있다. 바다의 물결이 아니라 땅우의 인파가 일으키는 《해일》을.

지난 8월중순 유원지의 해수욕장이 개장된 첫날부터 매일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곳의 봉사자들은 이미 한주일나마 숙박호실을 예약하려는 손님들의 량해를 구할수밖에 없다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손님이 없는 다층휴양각, 단층휴양각이란 하나도 없고 일정을 연기하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것이다.

그러나 호실이 대수랴. 50～100m의 폭을 이룬 모래불과 잇달린 솔향기 그윽한 수림에 천막을 치고 야영하면서 즐기는 해수욕의 느낌은 또 그대로 유별한데.

하여 연 15리의 바다기슭을 따라 펼쳐진 해수욕장 그 어느곳이나 낮에 밤을 이어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있다.

함흥시뿐 아니라 도내와 전국의 곳곳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것으로 하여 마전의 《해일상황》은 해소될 전망이 아직 묘연하다고 한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맑고 푸른 물결속에서의 해수욕, 바다기슭을 따라 펼쳐진 모래불을 달리는 승마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한껏 더해준다.



천생산에서 혁신을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서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조선에서 규모가 큰 천생산기지의 하나이다. 공장에는 방적, 견방, 직포생산공정으로부터 염색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17명의 녀성들이 로력영웅으로 자라났다.

나라의 방직공업의 모체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소비품생산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안아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언제나 자각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하기에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과 기능공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앞선 기술과 경험들을 적극 이전, 공유하면서 제품의 량과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로력혁신자들이 계속 선두에서 대중을 이끌고있다.

직포종합직장의 모범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실잇기방법과 기대순회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담당기대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기 작업반, 직장의 모든 직포공들이 다같이 책임량을 완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방적종합직장, 견방종합직장에서는 기능공들이 한대의 기대라도 더 맡아 혁신자의 대렬에 들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신입공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고무하면서 생산성과를 계속 올리고있다.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의 로동자들도 설비의 점검보수를 빈틈없이 하고 다추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박병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근로자들은 학생교복천생산을 비롯한 방직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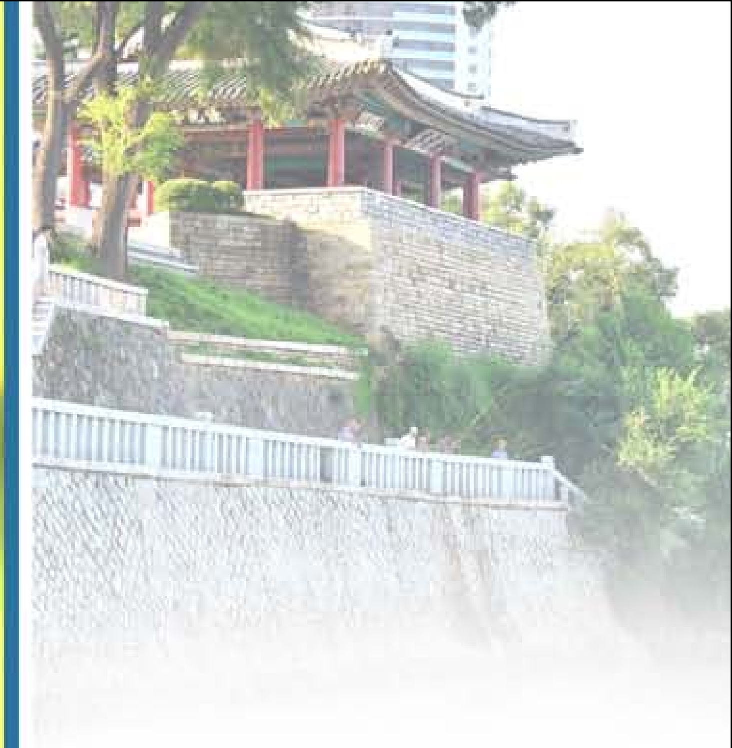






강가에 모여든 낚시애호가들





평양의 대동강, 보통강반의 유보도들과 여러 호수가의 물면에 낚시애호가들의 모습이 비껴흐른다.

다종다양한 낚시대들을 드리우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수도시민들의 낚시풍경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치를 더욱 돋구며 오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고있다.









수면우의 깜부기들을 응시하며 그린듯이 앉아있는 모양들은 거의나 판에 박은듯 하나같아보이지만 이윽토록 보느라면 그렇지도 않다.

큼직한 고기를 낚아 그물안에 넣으며 싱글벙글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장년이 있는가 하면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가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젊은이의 모습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어린 손자의 손목을 잡고 나온 나이지숙한 로인이 젊은축들에게 낚시의 묘리를 가르치는 모습도 비쳐든다.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을 낚아낼때면 그 주위에 우르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고 축하도 해주는 구경군들의 모습도 강변의 경치를 더욱 돋구고있다.

어둠이 짙어가도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찾아온 평양의 곳곳에 유정한 정서가 넘치고있다.

사진 최원철, 홍광남
글 박의철



세계탁구계의 녀왕 박영순

박영순(1956. 8. 22-1987. 7. 14.)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였다.

그는 선수로 생활하는 기간 금메달 15개를 포함하여 37개의 메달을 받은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 세계탁구녀왕이였다.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1위 쟁취



조선사람들치고 1970년대에 세계탁구녀왕으로 명성을 떨친 박영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주체45(1956)년 8월 조선의 북변인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한 로동자집안의 외동딸로 태여난 그는 어릴적부터 총명하고 이악하였다.

소학교시절부터 탁구소조에 망라되여 탁구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하였으며 2년만에 전문가들의 눈길을 모으게 되였다.

하여 주체57(1968)년에 평양에 있는 한 체육단의 선수로 선발되였고 몇년후에는 국내경기들에서 패권을 다투게 되였다.

왼손끼워잡기형선수인 박영순의 특기는 외로쳐넣기와 3구걸어치기가 묘하고 위력한것이였다.

박영순의 경기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기의 마지막까지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고 대담하게 경기를 진행하는것이였다.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1위 쟁취



박영순은 2중세계선수권보유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탁구감독으로서 인민체육인답게 나라의 선수후비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그의 생은 길지 않았으나 세계탁구계에 남긴 발자취는 력력히 남아있다.







박영순선수를 축하해주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



수십리연도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박영순선수를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그가 처음으로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는 주체64(1975)년에 진행된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였다. 당시 그는 조선의 유일한 녀자선수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개인단식경기에 출전하여 처음부터 세계적인 명수들을 물리치면서 한단계한단계 톺아오르던 박영순은 준준결승경기에서 2:2로 비긴 상태에서 마지막 5회전에 15:19로 4점이나 떨어지게 되였다.

박영순은 대담하게 련속 공격을 들이대였으나 점수는 다시 18:20으로 마지막 한알이 남게 되였다.

이런 경우 대체로 선수들은 마지막 한알을 무난히 넘기기 위해 공격을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박영순은 조금도 공격을 늦추지 않고 련거퍼 강타를 들이대여 끝내 형세를 역전시키고 23:21로 이겼다.

그때의 한알한알이 어찌나 사람들을 긴장시켰던지 다른 선수들까지 경기를 중단하고 박영순의 경기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후의 결승경기까지 그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의지를 발휘하여 마침내 우승을 쟁취하였으며 세계탁구녀왕칭호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였다.

그가 승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한알을 놓고 이악하게 싸워이긴 일화는 오늘까지 체육인들뿐 아니라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그후 그는 주체66(1977)년에 열린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단식경기에서 또다시 1등을 하여 2중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선수생활기간 금메달 15개를 포함한 37개의 메달을 쟁취한 그는 주체69(1980)년부터 4. 25체육단 탁구감독으로 있으면서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였던 박영순의 이름은 오늘도 탁구계의 별처럼 빛나고있다.

글 박의철



구월산의 사계절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

구월산이란 이름은 단풍드는 9월의 경치가 가장 수려하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

구월산은 예로부터 서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이다.

단풍든 구월산의 가을





화창한 구월산의 봄

황해남도 은률군과 안악군, 삼천군과 은천군의 경계에 솟아있는 구월산은 예로부터 서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이다.

단풍드는 9월의 경치가 가장 수려하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구월산의 해발높이는 954m(사황봉)이다.

오랜 세월의 풍화 및 침식작용은 황해남도에서 가장 높은 이 일대에 원추형, 각추형의 봉우리들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등을 형성하면서 사방으로 기기절묘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펼쳐놓았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사시장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들에는 룡연폭포, 삼형제폭포를 비롯한 폭포들과 담소들이 있다.

산의 북쪽비탈면중턱에는 오랜 왕가물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하여 유명해진 석담이 있으며 서쪽비탈면에도 이름난 소들이 있다.

산에는 노루, 복작노루, 오소리, 여우, 꿩, 부엉이 등 많은 동물들이 있으며 산삼, 단너삼, 만삼, 당귀와 같은 약초들도 많다.

구월산에는 력사유적들도 적지 않다.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에 쌓은 구월산성의 터와 고려(918년-1392년)시기 자기들을 굽던 가마터, 9세기초에 세워졌다는 패엽사의 터를 비롯하여 월정사, 흥률사, 락산사, 달마사 등 옛적의 불교사찰들과 그 터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 구월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황해남도의 제일가는 명승지, 탐승지로 되였다.

글 박병훈



록색으로 단장된 구월산의 여름

구월산에는 다른 명산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명소들과 력사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846년에 세워진 구월산 월정사는 오랜 력사와 함께 건물의 구조와 형식이 치밀하고 력학적으로 잘 째인것으로 하여 중세 우리 나라 건축물연구에서 의의가 큰 력사유적이다.

월정사는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만세루, 명부전, 수월당과 기타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다.







구월산에는 조선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월정사, 부도떼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유물들이 보존되여있다.





화보【자 연】
서리꽃 핀 구월산의 겨울
구월산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아 명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장엄한 기상으로 우뚝우뚝 솟아오른 큼직한 봉우리들과 절벽, 기암괴석들과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깊은 골짜기들, 또한 그사이로 흐르는 맑고맑은 시내물이 폭포와 담소, 여울목 등과 어울려 여러가지 기묘한 경치를 이루고있는 구월산은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로동신문
www.rodong.rep.kp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조선의 소리
www.vok.rep.kp
www.naenara.com.kp
민주조선
www.minzu.rep.kp
청년전위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The Pyongyang Times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ftrade.com.kp
www.kiyctc.com.kp
조선예술
www.korart.sca.kp
www.mirae.aca.kp
KORFILM
www.korfilm.com.kp
조선요리
www.cooks.org.kp
www.friend.com.kp
www.korelcfund.org.kp
조선관광
DPR Korea Tour
www.tourismdprk.gov.kp
국가해사감독국
www.ma.gov.kp
조선체육
www.sdprk.org.kp
금융정보국
www.fia.law.kp
만물상
www.manmulsang.com.kp
조선교육후원기금
KOREA EDUCATION FUND
www.koredufund.org.kp
조선우표
www.korstamp.com.kp
민족대단결
www.gnu.rep.kp
주체
www.kass.org.kp
류경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려명
www.ryomyong.edu.kp
조선민족보험총회사
www.knic.com.kp
13606-2280171



낸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